



우리에게 '사리'는 무엇인가?

생명의 길과 진리의 빛

(파트나 풍광과 바이살리 스투파)

다시 만다라의 세계가 펼쳐진다.

파트나(Patna)로 가는 길은 생사(生死)의 투영으로 한껏 나그네의 심경을 잡아준다. 비하르(Bihar)주의 삭막하고도 처절한 빈곤은 때 아닌 눈보라처럼 시리게 하나, 돌 가슴에 다가가 쫓는다.

나팔소리에 차창을 비껴보자 꽃장식 들 것에 실린 죽음이 앞서가고 그 뒤를 따르는 유족들. 그런데 슬픈 표정은커녕 주머니에 손을 찌르고 웅성대며 따라가는 모습이 실로 가관이다.

통행세를 내라고 흰 띠를 도로 양쪽 가로수에 묶어두고 두 팔로 길을 막아서는 도로법에 없는 행위를, 곡예하듯 차에 매달리고 차 지붕에 물건처럼 포개진 채 실려가는 사람들의 표정. 때로 눈길이 마주치자 여인들은 사리로 얼굴을 덮어버린다. 한편 무너진 담장에 걸쳐놓은 현란한 빛깔의 빨래, 담벼락에 쇠뿔을 붙이는 장면이 스치는가 하면 트럭터에 노오란 꽃을 장식하고 힘차게 일터로 향하는 풍광도 이채롭다.

장터를 방불케 하는 정류장 주변은 마차와 노점상, 걸인과 차량으로 뒤범벅인데 여전히 뿔뿔히 솟은 소들만은 유유하다. 그런데 이게 웬걸, 한 무리의 낙타들이 갑작스레 나타나 도로를 점령하니 모두들 차에서 내려 불거리에 한동안 신이 났다.

다시 탑승한 차는 파트나박물관에 정차한다. 선사유물과 함께 온갖 동물들을 박제로 만들어 전시하고 있는 소장품들을 화첩에 담는데 군인들이 지키고 선 붓다 진신사리 방은 개인당 100루피를 지불하고서야 문이 열렸다. 델리박물관 이후 2번째 사리진전은 들뜬 여행자의 호사를 한 순간 잊게 한다.

사리는 스투파들로 장식한 내부에 모셨는데 그 발상과 이미지가 매우 신선하다. 그리고 사방 벽에는 붓다의 생애를 새긴 아주 우수한 부조들이 걸려있다. 이곳 사리는 바이살리(Vaisali)에서 가져온 것으로 출토지역(바이살리 박물관)의 반향으로 더욱 경계가 삼엄하다는 후문이다.

차는 이제 갠지스강의 마하트마 간디 다리를 넘어선다. 그리고 저무는 대지와 마을을 향해 끝없는 질주 끝에 아쇼카왕의 이름을 딴 숙소에 머물렀다. 바이살리는 갠지스강을 건너 하지푸르(Hajipur)의 북서쪽 32km지점에 해당하는데 예전부터 북인도 일대의 교통, 문화, 경제 중심지로 발달한 곳이다.

붓다 입멸 후 약 100년경 계율에 관한 새 해석을 놓고서 행해진 제 2차 경전 결집의 무대가 된 곳이라 한다. 또한 재가불교(在家佛敎)의 태동이라 할 율가사(維摩居士)의 등장이 시작되는가 하면 기녀(妓女) 암라팔리(Amrapali)가 망고나무 동산을 붓다와 제자들에게 공양한 곳이기도 하다.

이튿날 아침, 여전히 짙은 안개속을 걸어서 제2결집 장소였던



◇파트나 가는 길(94×41.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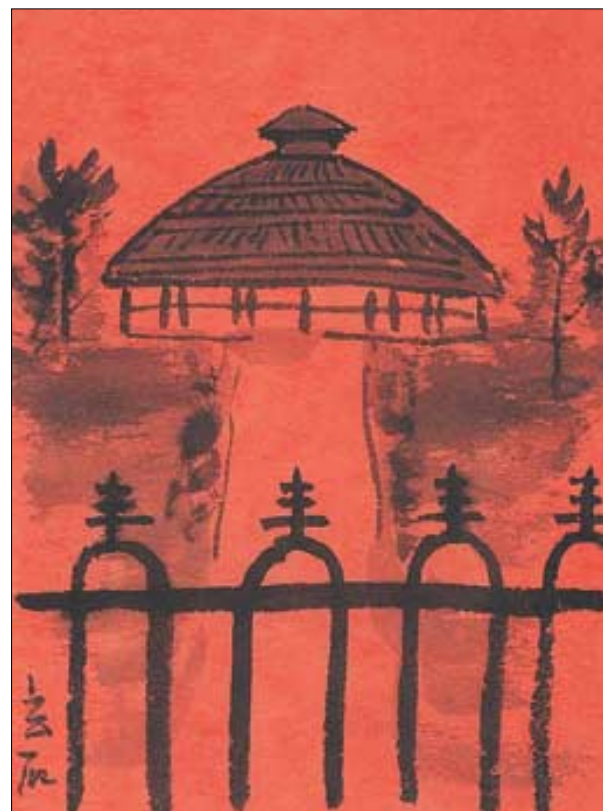
파트나 가는 길 만다라 세계 펼친 듯 스투파 돔으로 장식한 사리방 신선 2차 경전 결집 장소였던 바이살리 유산과 어울리는 담장 조형미 빛나

꾸마라하(Kumrahar) 연못을 찾아가자 부러진 석주만이 흔적을 보여 줄뿐 돌계단은 연못에 잠겨있다.

다시 숙소로 돌아와 아침을 먹고 바이살리박물관으로 가는 길목. 모닝커피 대신 따뜻한 짜이로 모처럼 여정의 낭만을 풀어준다. 어둡고 녹록한 나무집에서 아궁이 화덕에 빛바랜 용기로 차를 끓여 따라주는 노파의 손길. 말 한마디 통하지 않지만 따스한 인정은 역겹의 연(緣)이다. 그녀 이마에는 또렷이 붉은 점, 치렁치렁한 팔찌도 붉고 그 마음도 붉다. 일행이 찾은 박물관은 거의 인근 스투파에서 출토된 유물 소장품이라 하므로 그 현장을 향해 곧바로 길을 나섰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사리'는 진정 무엇인가? 붓다의 진건을 대신한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진리의 빛을 보지 못한다면 한갓 눈요기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순례라는 명분이 사리만 닿는 수고에 그칠 뿐인즉.

어쨌든 붓다 입멸 후 8등분된 사리를 분배받은 당시의 바이살리 뒷차비쪽은 이곳에 사리를 모시고 스투파를 세웠다. 그러나 그 후 파손되었다가 1958년에야 발굴된 사리 터가 오늘 찾은 레릭(Relik) 스투파이다.



◇바이살리 스투파(18.5×24.5cm).

잘 정비된 도로 끝으로 스투파 돔이 한눈에 들어오니 어제 본 파트나의 사리장치가 떠오른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거대한 스투파는 발굴당시 상태를 그대로 노출, 까마득한 세월의 흔적을 보여준다. 이중 구조의 원형으로 벽돌쌓기를 했고 양편은 T자로 돌출한 형태에 중앙은 깊은 홈으로 파였는데, 아마도 그곳에 사리함이 묻혔을 터이다. 이곳을 발굴한 알테카르(A.S. Altekar)에 의하면 발굴당시 이곳 스투파의 기반부에서는 붓다의 유골이 아닌 유희(遺灰) 사리가 발견되었다고 전한다.

일행들이 스투파를 돌며 답답이를 진행하는 틈을 다 화첩을 펼치는데, 담장 입구쪽에서 손짓하는 이가 있다.

“이 화백 이리와 봐요. 정말로 멋진 담장을 구경하세요. 그리고 꼭 그려주세요.”

철심으로 만든 투각의 울타리는 자세히 보니 모두 스투파 형식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 병렬된 투각의 형상과 이미지는 스투파 지붕선과 함께 매우 잘 조화된 조형미로 빛난다.

나그네는 이 멋진 울타리 앞에서 한국의 문화유산을 떠올려야만 했다. 우리도 우리 문양과 양식을 토대로 한 유물 담장이 이처럼 적어올리게 개발될 수는 없을까. 이런 한국의 탐과 부도도 거친 쇠붙이로 '접근금지'의 울타리만을 일삼을 것이 아니라, 이 경우처럼 내용에 걸맞는 형식을 연구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여기에 미치지 불현듯 두고 온 고국산천의 보물들이 떠올러진다. 안개 개인 하늘, 흐르는 구름을 바라보며 모처럼 나그네는 향수에 젖는다.

hsl1957@ycos.co.kr

협찬 : 안성 도피안사 · 실크로드여행사



천년고찰 효일사에 우담바라 꽃이 나투셨습니다.

효일사 우담바라 친견대법회 및 100일 기도 안내

경기도 시흥시에 소재하고 있는 천년고찰 소재산 효일사는 보물 제1324호로 지정된 마애관음성지가 있는 기도영험도량으로서 서해안 시대를 맞아 지역 불법홍포에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불기2547(2003)년 12월 2일 오전 5시 30분 경 대웅전 부처님 상호에 3천년에 한번 된다는 성스러운 우담바라 꽃이 12송이 피어났습니다. 이날 오후 2시에는 흐린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오색찬란한 무지개가 마애관음보살님과 대웅전을 향해 1시간 20분 동안 피어있는 기이한 현상을 보여 기도에 동참한 불자들이 환희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천년고찰 효일사에 나투신 우담바라를 봉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우담바라 친견 100일 용맹정진 기도와 원로 대덕 큰스님을 법사로 모시고 우담바라 친견대법회를 봉행코자 합니다.

전국의 불자님들께서는 세계생생 만나기 어려운 우담바라 친견대법회에 많은 동참 있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 100일기도 입재일 : 불기 2547년 12월 5일 (음, 11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
- ◎ 100일기도 회향일 : 불기 2548년 3월 15일 (음, 2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
- ◎ 친 견 대 법 회 : 불기 2547년 12월 21일 (음, 11월 28일) 일요일 오전 10시

제1부 우담바라 친견 대법회
제2부 연예인 축하공연

◎ 동 참 문 의 : 효일사 종무소 ☎ (031)404-0707 팩스 : (031)404-0709

대한불교 조 계 종 천년고찰 효일사 주지 성타 手掌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산 148-2 ☎ (031) 404-0707 팩스 : (031)404-0709